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치평가



이상현
창업 칼럼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은 다양하게 적용된다. 먼저 수익위주의 가치판별법과, 자산위주의 가치판별법 그리고 상대가치를 통한 판별방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실시되었던 많은 브랜드에 대한 M&A를 분석해보면 세가지 가치평가적 요인들중 수익가치분석기법과 상대가치 분석법에 의한 평가가 많았다.

예를들어 커피브랜드 할리스나 의 경우 국내 커피아이템에 대한 성장과 규모의 증가로 인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인수시점의 매출대비 수익성 측면만 고려한 평가였다면 성사되기가 어려운 브랜드들의 수익구조라 할 수 있었다. 몇 년전 큰 충격적 M&A로 평가되는 배달의 민족은 단지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평가된 거대였다면 약 4조라는 가치적 평가를 받을수 없었을 것이다. 상기 사례로 확인했듯이 프랜차이즈는 미래적 가치와 함께 관련 산업과 시장

의 성장력과 함께 유사 기업의 각종 지표의 분석을 통한 상대가치를 통한 분석기법도 필요한 점검사항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M&A의 경우는 유사거래의 선정방식이 많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유사사례를 찾았다면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를 점검해야 한다.

재무적지표로는 매출액,영업이익률,순이익률,자본현황,가맹점수,물류구성비, O EM, ODM비율등을 의미하며 비재무적 기준은 가맹점충성지수,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 상품별, 마케팅대비효율성, 협력업체의 경쟁력등을 말할수 있다.

하지만 인수하려는 기업의 브랜드가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탑재한 아이터이라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률등 재무적 판단만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비재무적 판단기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새로이 점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시장에 안정적 진입과 투자대비 수익성 증가를 함께 가져올 수 있는 브랜드는 어떠한 조건을 탑재해야만 성공적 투자가 가능할까?

먼저, 브랜드에 대한 1,2차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구분하는 1차 소비자란 가맹점주를 의미하며, 2차 소비자는 실질적 충성고객을 의미한다. 결국 해당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와 만족도가 브랜드의 경쟁력이며 수익과 성장률의 근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점의 규모와 지역분포도가 중요하다. 최소한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가맹점의 분포도에 따라 마케팅과 물류지원, 관리시스템 등 실질적 수익기반과의 호환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00개미만의 브랜드가 전국 단위로 산재한 위치기반이라면 유통과 매장관리를 위한 경상비의 상승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녹록치 않을 것이다. 동종아이템 내지 유사 아이터와의 경쟁강도가 항목별로 차별성과 경쟁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반듯이 따져봐야 할 사항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M&A는 브랜드력, 가맹점주, 조직력, 수익성측면에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우수한 브랜드를 발굴 결정할 수 있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LFP, 비싸다



이지수첩
허정윤
(산부)

현재 국내 배터리 업계의 화두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생산이다.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주력은 '비싸지만 오래 멀리 가는 배터리', 즉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였다. 하지만 배터리 업계의 판도가 빠른 속도로 LFP로 옮겨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이른바 'LFP 대체론'은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구축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NCM 배터리가 탑재된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소비심리는 위축됐지만 LFP 배터리로 가는 중저가 전기차 시장은 활발한 거래가 진행되

는 분위기다.

실제로 테슬라, KG모빌리티, 국내 완성차업체들까지 중국산 LFP 물량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LFP 배터리의 점유율은 빠르게 증가해 2020년 11%에서 지난해 31%로 늘었으며 2030년 40%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결국 프리미엄 제품을 주력으로 삼던 배터리 제조사들도 중저가 시장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앞다퉈 빠르게 생산하겠다'고 나선다는 소식은 더 이상 새롭지도 않다.

너도 나도 개발에 나서는 LFP의 장점은 명확하다. NCM보다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지만 제품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단점마저 기술 개발로 점차 보완되고 있다. 게다가 충전 인프라까지 개선되면 가성비 높은 LFP 배터리의 인기는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LFP는 결코 싸지 않다. 여기에는 재활용 가격이 빠져있다. LFP 배터리는 다른 종류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철과 인의 비중이 높다. 그렇다 보니 재활용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재활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NCM 배터리는 비싼 대신 그 안에 다량 포함돼 있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고부가가치 원료가 재활용이 가능해 폐배터리조차도 수익원으로 각광 받는 중이다.

반면 LFP 배터리는 환경 처리 비용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재활용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LFP 전기차 폐차되면 배터리는 그대로 땅에 묻힌다.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지만 그조차도 한계는 명확하다. 전기차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일이다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한 때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8일 (음 9월 25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좋은 꿈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라. **48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조상님 은혜. **60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 내어 일을 추진해라. **72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84년생**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지 말도록.
- 37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49년생**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자. **61년생** 삶의 중심에 자신을 두라. **73년생** 수영선수가 물을 두려워한다. **85년생**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떠 있음을 잊지 마라.
- 38년생** 싫다고 금방 달아나지 말고 진중히 생각. **50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 **62년생** 멀리서 반가운 친구가 찾아온다. **74년생** 경계 넘는 것을 신중히. **86년생**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곧 있겠다.
- 3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51년생** 인기척도 없는 쓸쓸한 노후가 되려는가. **63년생** 노력을 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75년생**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87년생** 기대를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
- 40년생** 처음이 어렵지만 두 번째는 쉽다. **52년생**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64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76년생** 피곤하다고 아무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할 것인가. **88년생** 투자도 사람을 봐가며 따라야만.
- 41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 **53년생** 확실한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한다. **65년생** 불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상승생소. **77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만. **89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하게.
- 42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54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66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서 가라. **78년생** 가족의 평화나니 성공을 이끄는 지평이가. **90년생** 이직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
- 43년생** 작은 일에 격한 말로 상대를 다치게 한다. **55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 **67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란 걸. **79년생** 능력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분발. **91년생** 몸이 멀리 가니 마음도 멀어진다.
- 44년생** 도움을 찾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려 온다. **56년생** 종로에서 뽕맛고 한강에 가서 분골이할 듯. **68년생** 오후까지 아무 탈 없으니 상심하지 말자. **80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 **92년생** 편안할 때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여 항상 준비해 둘 것.
- 45년생**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57년생** 꽃이 피는 시기는 나무마다 다르다. **69년생** 더 낮고 더 못함의 차이가 없다. **81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본인 잘못도 생각. **93년생** 운이 내리막길 때는 보석비가 내려도 만족을 모른다.
- 46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58년생** 에디슨처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70년생** 어제 본 그 사람이 귀인이다. **82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찾아라. **94년생** 의심은 무서운 생각과 의심의 암구멍을 만든다.
- 47년생** 고임에 넘어가지 마라. **59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움 하후. **71년생** 임동은 찬 이슬이다. **83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실적의 기회가 온다. **95년생** 덕을 쌓은 사람은 사람들이 몰라준다 해도 하늘이 알아주어 후일 복을 받음.



김상회의四季 절대 긍정

긍정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졌는지는 거듭 강조할 필요성조차 없다. 긍정의 힘이 주는 용기와 인생의 발전에 대한 예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우울과 무력감에 빠져 스스로 삶을 마치고 가족들까지 불행하게 이끌고 있다. 긍정의 힘이 주는 마력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필자에게 상담을 올 때 인생의 난관과 고민으로 파김치가 되어 오는 분도 적지 않다. 필자가 보람을 느낄 때는 이러한 분들이 들어올 때는 시무룩하다가 문밖을 나갈 때는 들어올 때의 발걸음과 다르게 뒷모습조차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 있다.

대부분이 시간이 좀 지나면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방문한다. 사주 감명의 결과가 좋을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설사 운이 비운으로 흐른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말씀드리며 긍정 마인드로의 전환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상담을 놓을 수 없는 보람된 이유이기도 하다. 석가모니가 하신 지혜의 말씀 중의 하나지만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으니'라는 이 명구는 늘 되새길 만하다. 습관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걱정을 달고 산다. 실제로 걱정할 일이 아니고 상대적으로도 배부른 고민을 할 적도 많다.

조금만 마음자리를 바꾸어도 될 문제에 대해 걱정 근심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비근한 이야기로 유머와 풍자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마크 트웨인에 관한 얘기가 있다. 연일 폭우가 쏟아지자 한 사람이 마크 트웨인에게 "이 비가 그칠까요?"라며 걱정스레 물었다. 마크 트웨인은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정말요"하고 되묻자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럼요, 그동안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없답니다." 긍정의 힘은 정말로 신기하다. 따지지 말고 따라 해야 할 마음가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해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2	8	1	9	5
4	8	9	5	1	7
9	1	6	7	2	8
8	1	6	2	9	4
8	4	9	6	8	7
2	9	7	1	9	6
6	7	8	4	9	5
1	8	4	2	6	9
9	2	9	7	1	8

9	8	2	8	1	4	9	6	7
1	7	4	8	9	6	2	9	8
8	6	9	2	7	9	8	4	1
7	4	9	1	6	9	8	2	8
8	1	9	2	7	1	9	6	8
2	9	6	4	8	8	1	7	9
9	9	8	7	4	8	6	1	2
4	1	7	6	8	2	9	8	9
6	2	8	9	1	7	8	4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0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0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